

보 도 자 료



- ◆ 2024. 11. 17. (일) 배포
- ◆ 총 4쪽 (본문 2쪽, 붙임 2쪽)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강민구 홍보실장 ☎ 032-770-8631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☎ 032-770-8637

남극의 셰프, 세종기지에 온다

MBC·LG유플러스 <남극의 셰프>, 세종기지 방문… “극지연구 공감대 형성 기대”

- 극지연구소(소장)는 MBC와 LG유플러스 STUDIO X+U가 공동 제작하는 “남극의 셰프”팀이 남극세종과학기지에 방문한다고 밝혔다.
- 백종원과 임수향, 수호, 채종협 등 “남극의 셰프”들은 지난 16일(토) 인천공항을 출발했으며, 칠레 푼타아레나스에서 남극 킹조지섬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.
- “남극의 셰프”는 혹독한 남극 환경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대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, 우리나라가 남극에서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이유와 대원들의 노고도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“남극의 셰프”팀은 남극행에 앞서 극지안전훈련을 수료하는 등 기지 방문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갖췄으며, 월동연구대와 함께 생활하면서 남극기지 대원의 삶을 경험한다.
- 월동연구대는 1년 단위로 연구와 기지 관리 등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주 인원들을 말한다. 남극에서 겨울을 보내기에 월동연구대라 부르며,

현재 세종기지에는 37차 월동연구대가 근무 중이다.

- 세종기지는 1988년 2월 남극 킹조지섬에 문을 연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남극과학기지이다. 지난 30여 년간 해양과 대기, 생물 분야를 연구하며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유용한 생명 자원 발굴에 기여했다.
- “남극의 셰프”팀은 기지 설립 이후 방송 제작 목적의 방문으로는 최대 규모로, 극지연구소는 제작팀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.
-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“남극의 셰프’팀의 마음과 정성이 세종기지에 잘 전달되길 바라며, 이번 프로그램으로 극지연구에 대한 공감대가 일반에도 널리 확산되길 희망한다”라고 전했다.

붙임 1. 남극의 셰프 팀 인천공항 출국



